

10/8/23

설교 제목: 부모와 자녀 간의 실천적인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6 장 1-4 절

## 자녀와 부모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된 성도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실천적인 삶을 구체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다룹니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언급한데 이어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지키며 살아야 하는 원칙을 언급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초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실천적인 삶을 언급하며 최우선적으로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언급합니다.

먼저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을 언급한 후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언급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썼기에 여기서 언급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실천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옳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만물의 모퉁잇 돌이자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옳음이란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되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함으로써 순종의 범위를 정해 줍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골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이 '밀에'와 '두다'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 비해 순종은 '밀에'와 '듣다'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같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모를 거역하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신 21: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신 21:19)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신 21: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신 21: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엡 6:2 A)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 중 제 5 계명입니다.

계명은 곧 명령입니다.

(출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단호하게 심판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은 외적 순종에 수반되는 내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외적 내적으로 모두 부모를 받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수퍼 맨같이 생각되어 순종하고 공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약점과 결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주장과 지시가 틀릴 때도 많습니다.

자녀의 판단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각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낳고 기르신 분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받드셨습니다.

(눅 2: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눅 2: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눅 2: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눅 2: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셋째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엡 6:2 B)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 중 제 2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보지만 이는 약속이라기 보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 5: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 5: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정리합니다.

'여호와가 네게 준'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함으로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부모들을 향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명합니다.

1, 2 절에서 부모라고 했는데 여기서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며 자녀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엡 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를 향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남용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 등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녀의 행복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모들을 향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맡아 양육하도록 양육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길입니다.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이 물려 주어도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날려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며 살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신앙의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출애굽한 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후손들은 급격히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벌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이 대대로 복받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훈련시키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리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천대까지 복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